

고도화된 'AI 홈' 부터 '인간형 로봇'... 미래 일상 현실화

CES 2025 성료

AI·로봇 기술의 일상화 선언
삼성·LG, 휴머노이드 시장 진출
초개인화 스마트홈 기술 공개
자율주행·모빌리티 혁신 선도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5'가 14만여의 관람객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는 하드웨어 보다는 일상생활에 접목한 AI 홈(home) 기술을 기반으로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며 한층 현실화된 인공지능(AI) 기술을 선보였다.

14일 CES 주관사인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에 따르면 지난 7~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5에는 총 14만1000명이상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의 13만 5000명보다 약 5% 늘어난 수준이다. 참가국 기준으로 미국이 1500여개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중국(1300여개), 한국(1000여개)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역대 처음으로 삼성·현대차·SK·LG 등 대기업과 스타트업 등 1000개가 넘는 기업이 참가했다.

◆'휴머노이드 로봇' 신성장 사업 물망
올해 CES에서는 AI는 가전,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기본요소로 자리잡았다. 특히



지난 8일(현지시각) 미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전자·IT 박람회 'CES 2025' 유니트리 전시관에서 유니버설 휴머노이드 로봇 H1이 방문객과 악수하고 있다. /뉴스시

AI를 더한 '로봇'이 시장을 재패할 신 사업으로 본격 소개됐다. 젠스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행사의 첫 기조연설을 통해 AI 로봇을 성장 산업으로 강조하면서 우리 기업들도 연이어 참전을 선언했다.

이번 행사에서 국내 양대 전자 업체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초개인화 기조 아래 로봇비서 출시를 공식화하며 휴머노이드 로봇의 서막을 알렸다.

삼성전자는 AI 비서 로봇 '볼리'의 상반기 출시 계획을 깜짝 발표했다. 오는 5~6월 중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먼저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볼리는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컨트롤하고, 아이와 반려동물 등을 살피는 역할도 한다. 홈트레이닝 메이트는 물론 재택근무 시 보조스크린 역할을 하는 등 집사 역할을 맡는다.

특히 최근 삼성전자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한 데 이어 한층 더 고도화된 AI 기술을 접목한 가전제품을 앞다퉈 공개하며 초개인화된 스마트홈을 내세웠다. 삼성전자는 '모두를 위한 AI'(AI for All)를 주제로 스마트싱스를 기반으로 가족의 맞춤형 집인 '홈 AI'를 제시했다. 가전은 냉장고 내부 식재료를 카메라가 자동 인식해 식품 목록을 만들어주는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와 퇴근 시간에 맞춰 바다 청소를 대신해주는 '비스포크 AI 스팀' 등을 전시했다.

LG전자 역시 '가사 해방'에 목적을 둔 휴머노이드 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LG전자는 이동형 AI홈 허브 'Q9'의 제품과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를 오는 2~3월에 개발자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 연구개발(R&D)은 휴머노이드를 포함해 기술을 준비 중으로 로봇 사업을 위한 투자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3월 AI 기반 자율주행 서비스로봇 스타트업 베어로보틱스에 6000만달러(약 800억원)를 투자해 지분을 취득하기도 했다.

◆고도화된 AI가전부터 미래 모빌리티 공개

양사는 한층 더 고도화된 AI 기술을 접목한 가전제품을 앞다퉈 공개하며 초개인화된 스마트홈을 내세웠다.

삼성전자는 '모두를 위한 AI'(AI for All)를 주제로 스마트싱스를 기반으로 가족의 맞춤형 집인 '홈 AI'를 제시했다. 가전은 냉장고 내부 식재료를 카메라가 자동 인식해 식품 목록을 만들어주는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와 퇴근 시간에 맞춰 바다 청소를 대신해주는 '비스포크 AI 스팀' 등을 전시했다.

가전에 탑재된 AI 음성비서 '빅스비'도 업그레이드 했다. 자연스럽고 연속적인 대화가 가능해졌고, 한 문장의 명령어로 여러 기기를 한 번에 제어한다. 가족 구성원 목소리를 인식해 개인별 일정 알려주기도 한다. 냉장고 속 유

통기한이 임박한 식재료를 파악하고 음식 레시피도 제안한다.

특히 삼성전자는 홈 AI를 구현하는데 있어 보안을 최우선으로 했다. 삼성 녹스 매트릭스는 블록체인 기반의 보안 기술로, 연결된 기기들이 보안 상태를 상호 점검하다가 외부의 위협이 감지되면 해당 기기의 연결을 끊고 사용자가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알려 준다.

LG전자는 집, 사무실, 차량, 취미 공간 등 다양한 환경에서 '공감 지능'을 통한 맞춤형 경험을 내세웠다.

LG전자의 AI 홈 존에서는 생생형 AI를 탑재한 'LG 씬큐 온(ThinQ ON)'과 온디바이스 AI 기반 허브 제품이 집안 곳곳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고객의 행동과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IoT 기기를 최적으로 제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심박수나 호흡 상태를 분석해 냉수 대신 온수를 제안하거나, 자동으로 집안 온도와 습도를 조절한다.

또 77형 무선·투명 올레드 TV 'LG 시그니처 올레드 T'를 활용한 초대형 미디어 아트를 선보였다. 이 기술은 무선 전송과 투명 디스플레이의 융합으로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하며, 혁신적인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제공한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자율주행과 전기 동력을 접목한 혁신 기술이 돋보였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삼성, 더 개인화 된 갤럭시링 14·15호 선봬

신규 2종 더해 총 11개 사이즈 '삼성 헬스' 앱 기능 업데이트

삼성전자는 웨어러블 제품 '갤럭시링' 신규 사이즈 2종을 오는 24일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나온 신규 사이즈는 14호(직경 23mm)와 15호(23.8mm)다. 이에 따라 갤럭시링은 5호부터 이번에 출시된 14·15호까지 총 11개의 사이즈로 구성된다. 색상은 티타늄 블랙, 티타늄 실버, 티타늄 골드 3가지 색상 가운데 고를 수 있다. 가격은 49만 9400원이다.

삼성전자는 오는 2월부터 일본, 체코 등 15개 시장에도 추가 출시한다. 이에 총 53개 시장에서 판매한다.

센서 기술을 탑재한 갤럭시링은 사용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24시간 관리하도록 지원한다. 갤럭시링을 통해 측정된 건강 정보와 건강 팁(TIP)은 삼성

헬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사용자가 더욱 개인화된 수면 경험을 통해 종합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삼성 헬스' 앱 기능 업데이트 했다. 삼성 헬스 앱은 기존에 지원하던 사용자 수면 단계 분석과 함께 '마음챙김' 기능과 수면 관련 기능 2가지를 추가 제공한다.

마음챙김 기능은 사용자가 더 편안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기분 추적, 호흡 가이드, 명상 프로그램 추천 등을 삼성 헬스 앱의 통합 대시보드를 통해 제공한다.

수면 환경 보고서 기능은 삼성 헬스 앱과 스마트싱스 앱을 연계해 구현하는 기능으로 상반기 내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스마트싱스 앱에 연

결된 기기들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로 실내 온도, 습도, 공기 질, 빛의 세기 등 수면 환경을 분석한 후, 사용자에게 개인화된 최적의 수면환경을 추천한다.

또한 삼성 헬스 앱이 수면 습관과 수면 기록을 분석해 사용자에게 최적의 취침 시간을 제안한다. 사용자는 이 기능을 통해 건강한 수면 습관을 형성하는데 도움 받을 수 있다. 이 기능은 하반기 내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구남영 기자



'갤럭시링' 신규 사이즈 2종 /삼성전자

티맵에 가게 등록하고 네이버 포인트 받자

티맵모빌리티 내달 28일까지 이벤트 업체 1개당 네이버페이포인트 1만원

티맵모빌리티가 티맵(TMAP)에 업체 정보를 등록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네이버 포인트 1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1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내달 28일까지 진행된다. 티맵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다. 티맵의 사업장 관리 서비스인 '비즈 플레이스'에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비즈 플레이스 홈에서 본인의 사업장을 검색한 후 새롭게 업체를 등록하거나, 이미 등록된 업체가 있다면 '사장님

등록하기'를 진행하면 된다. 업체 필수 정보로는 매장 사진, 영업 시간, 주차 정보 등이 요구된다. 일부 업종은 메뉴 정보까지 추가 입력해야 참여가 완료된다. 이벤트에 참여한 사업주 전원에게는 업체 1개당 네이버페이 포인트 1만원이 제공된다. 응모 시 등록된 휴대폰 번호를 기준으로 최대 5곳(5만원)까지 지급된다.

보상은 3월 31일 이내에 모바일 쿠폰 형태로 발송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지상파 3사, 네이버에 저작권 침해 소송

하이퍼클로바 X 개발 과정 무단으로 기사 데이터 사용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가 네이버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걸었다.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X 개발 및 학습 과정에서 기사를 무단으로 학습 데이터로 활용했다는 주장이다.

39개 지상파 방송사를 회원으로 둔 한국방송협회(이하 방협)는 지난 13일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방협회는 지난 2023년 12월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코리아, MS 등 국내외 IT 기업을 대상으로 "지상파 방송사의 뉴스콘텐츠뿐 아니라 모든 오디오, 영

상 콘텐츠를 AI 학습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상 협의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이용을 금지한다"고 사전 경고했다.

회원사 법무팀·지식재산권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방협회 AI TF는 지금까지 네이버를 상대로 두 차례 방송사 뉴스데이터 사용 보상 및 향후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 협회 TF의 'AI 학습 이용 데이터의 출처와 내용, 데이터 취득 경로 공개 요청'에 대해 네이버는 "학습 데이터의 종류 및 상세 내용은 기업의 중요 자산인 기술 노하우에 해당하여 공개가 어렵다"고 거절했다. 이에 한국방송협회가 네이버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서현 기자 seoh@

韓 ICT수출 작년 역대최고... 반도체 주도

지난해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수출액이 2350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인공지능(AI) 관련 수요 증가로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영향이 컸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4년 연간 ICT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은 2350억달러, 수입은 1432억달러로 무역수지는 918억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

ICT 수출액은 14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연속 월간 수

출액이 200억달러를 상회하면서 2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반도체가 AI 수요 증가로 실적을 견인했다.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대비 42.5% 증가한 1420억9000만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메모리 반도체는 AI 반도체 수요 증가로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고부가가치 품목 수출이 큰 폭으로 늘었으며, 시스템 반도체도 첨단 패키징 수출 확대로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나타냈다.

/이혜민 기자 hyem@